

June 2012

天地人 孫父母 福利 解放 完成 時代

Tongil Group Newsletter

Newsletter



Tongil Group <http://www.tongilgroup.org/eng> Contact: info@tongilgroup.com Copyright© Tongil Group All Rights Reserved



True Parents' Activities



Cheong Hwa Gung Hoondokhwe

- 4.6 by the Heavenly Calendar (May 26)

 통일교
UNIFICATIONISM
www.tongilgyo.org



 **Congratulations on the birth of Shin Ju Nim, son of Kook Jin Nim and Ji Yea Nim!**

On this day, True Parents held a cake-cutting ceremony during Hoondokhwe to celebrate the birth of Shin Ju Nim, son of Kook Jin Nim and Ji Yea Nim, born at 5:10 am on April 13th, by the Heavenly Calendar in the 3rd year of Cheon-gi. Congratulations!





twitter



lovintp 문형진.이연아

동일교 목사-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섬기는 사람, 성령의 은혜로 덮여있는 회개한 죄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 참부모님 억만세 진동수행자. 권복증(동일교 세계본부): 서울시 용산구 3가 63-379

<http://www.tongilgyo.org>

“**May 26th, Today's Hoondokhwe:** Heavenly Father, I resolve to become a person who desires not to receive blessings, but to give them. Just as You came to me and comforted me when I felt all alone, please visit the hearts of those who revere You when they are in difficulty. Aju.”

“**May 28th, Today's Hoondokhwe:** The fall of humankind was brought about when individuals began to sacrifice others for their own gain. Satan used the seed of human beings for his own desires. Thus, God's motive of goodness was destroyed from the outset. To resolve this, God created religion and made human beings choose their own path of goodness. That is why Jesus walked the path of sacrificing himself for others. Aju.”



Chairman Kook Jin Moon of the Tongil Group gave a Special Lecture on 'Strong Korea?' at Sun Moon University.

On May 31st, Chairman Kook Jin Moon of the Tongil Group gave a special presentation titled, 'Strong Korea?', in Room 101 of the Engineering Building of Sun Moon University. President Sun Jo Hwang attended this event along with more than 350 Sun Moon University students.



Chairman Kook Jin Moon gave a Special Lecture on “Freedom Society” to the participants of the Special 30-day Original Divine Principle Workshop

On June 1st, Chairman Kook Jin Moon gave a special lecture on the <Vi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God’s Ideal World>, entitled “Freedom Society”, to the participants of the Special 30-day Original Divine Principle Workshop of New Tribal Messiahs at the Central Training Center.





Media Coverage

* The Segye Times: Tongil Group Meeting with the Paraguayan President (attended by Chairman Kook Jin Moon)

In the morning of May 29th, Chairman Kook Jin Moon of Tongil Group held a meeting with the Paraguayan President and his entourage, who were currently visiting Korea, at the Seoul Hyatt Hotel; and discussed Tongil Group's export and investment interests in Paraguay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 파라과이 대통령과 간담회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루고 멘데스 파라과이 대통령(왼쪽 세번째) 일행과 현지 투자 및 수출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겔 로하스 대통령 특별보좌관(장관급)과 알프레도 이타이푸 мем 자문관, 홍선표 통일그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범준 기자



*** United Kingdom: Channel 4 airs 'Married to the MOONIES' (60-minute documentary)**

The documentary closely followed English second generation Unificationist couples, Reamonn and Lisa, Sean and Jessica and Andy and Elisa, for eight months; and covered a detailed account of their wedding preparations, from their first meeting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mass wedding. This production particularly highlighted proud aspects of the Unification Church, including True Parents' past activities in the U.S., the pure love movement and the pride of the second generation members in keeping themselves chaste for their future spouses.





*** Yeosu Expo – Universal Ballet’s ‘Shimcheong’ warmly received**

Universal Ballet’s masterpiece, ‘Shimcheong’, was warmly received by the audience at the Yeosu Expo. The ballet ‘Shimcheong’ is one of the masterpieces of the Universal Ballet, which incorporates the concept of filial piety characteristic of Korea. And it was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on a floating stage in Korea.

The ballet ‘Shimcheong’ was first performed abroad in 1986; and since then it has been performed more than 200 times in ten nations, making it indeed a masterpiece that has given birth to the term, ‘Ballet Korean Wave’.

MBC News

http://imnews.imbc.com/player/index_frame.asp?arti=3068499&vodurl=vod.imnews.imbc.com/vod/definst/mp4.newsvod/oday/2012/05/mbc_morn_20120529_2_500k.mp4



- Jeonnam Times : Yeosu Expo – “Big O” Universal Ballet’s ‘Shimcheong’

‘빅오’ 인당수로 변신

28일부터 ‘발레 심청’ 한국 발레 첫 해상 공연

여수엑스포 빅오(Big-O)해상 공간이 ‘심청전’의 주 무대가 되는 인당수로 변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준숙)의 대표 공연 ‘심청’이 여수세계박람회 축제 공식 초청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수엑스포 해상무대에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야외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한국 발레 역사상 최초다.

발레 ‘심청’은 한국 고유의 정서인 ‘孝(효)’ 사상과 서양의 보편적 예술장르인 발레가 만나 탄생한 글로벌 창작품이다.

1986년 세계 초연 후 지금까지 18개국 200여회 공연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월드투어를 통해 ‘발레 한류’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대작이다.

워싱턴 케네디센터, 뉴욕 링컨센터, LA 뮤직센터 등 이공대 미국 3대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동 최대의

오만 보일오페라하우스 개관 페스티벌에 초청돼 정식 폐인과 함께 가림막수를 받는 등 흥풍을 일으켰다.

올해 5월에는 발레의 중추국가라 불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초청돼 공연을 받았다.

발레 ‘심청’은 한국의 전통 사상이 서양의 발레와 조화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출연진은 발레에 맞게 디자인된 전통의상을 입었으나 모든 동작은 철저히 발레식 발레에 기반하고 있다. 또 초연 작업부터 캐스팅 작업까지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해 ‘심청’을 한국적인 동시에 세계적인 작품으로 정면시켰다.

타이베이타임즈의 다이앤 베이커(Diane Baker)는 2011년 4월 11일자 신문에 “기묘의 마음과 사랑의 왕궁 배경은 아름답지만서도 세밀했고, 2막의 공양이 사는 바닷속은 눈부신 세계의 의상과 함께 매우 아름답다”고 평했다.



여수엑스포 빅오(Big-O)내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무대에서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 공연 ‘심청’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펼쳐진다. 사진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발레 ‘심청’ 공연 모습.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제공

이번 여수엑스포 해상무대 공연은 발레 심청의 또다른 도전이다. ‘수연의 무대’는 야외공연의 세계적 트렌드로 오페라, 뮤지컬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발레 공연의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발레는 특수성을 신고 발음으로 중심을 잡으며 춤을 추는 장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유니버설발레단 문준숙 단장은 “바다 위 수상 무대는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발레는 무수대를 신고 발음으로 중심을 잡으며 춤을 추는 장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유니버설발레단 문준숙 단장은 “바다 위 수상 무대는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버설발레단 심청은 오는 28일 발레를 극장예술로 꽃피운 파리에 초청돼 또 한번 유니버설발레단의 ‘심청’의 인기를 평가받을 예정이다. 김기홍 기자 khkim@mbc.com 여수-이경기 기자



오는 28일 여수엑스포 해상무대인 빅오에서 개최될 발레 '심청'의 한 장면.

여수엑스포 조직위 제공

발레 '심청', 바다 위 무대 첫 도전

28~30일 빅오서

여수세계박람회의 인기몰이 가운데 하나인 빅오(Big-O)가 오는 28일 인당수로 변한다.

21일 여수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훈숙)의 대표 공연 '심청'이 박람회 공식 초청돼 28일부터 30일까지 해상무대에 오른다.

바다 위에 떠있는 야외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한국 발레 역사상 최초다.

발레 '심청'은 한국 고유의 정서인 '효' 사상과 서양의 보편적 예술장르인 발레가 만나 탄생한 글로벌 창작품이다.

1986년 세계 초연 후 지금까지 10개국 200여회 공연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으며, 월드투어를 통해 '발레 한류'라는 신조어까지 탄

생시킨 대작이다.

워싱턴 케네디센터, 뉴욕 링컨센터, LA뮤지센터 등 이른바 미국 3대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동 최대의 오만 로열오페라하우스 개관 페스티벌에 초청돼 전석 매진과 함께 기립박수를 받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올해 5월에는 발레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초청돼 격찬을 받았다.

발레 '심청'은 한국의 전통 사상이 서양의 발레와 조화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출연진은 발레에 맞게 디자인된 전통의상을 입었으나 모든 동작은 철저히 클래식 발레에 기반하고 있다.

또 초연 작업부터 개점 작업까지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해 '심청'을 한국적인 동시에 세계적인 작품으로

정련시켰다.

이번 여수엑스포 해상무대 공연은 발레 '심청'의 또다른 도전이다.

'수면의 무대화'는 야외공연의 세계적 트렌드로 오페라, 뮤지컬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발레 공연의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발레는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중심을 잡으며 춤을 추는 장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은 "바다 위 수상 무대는 습기로 인해 무대 바닥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커서 발레를 공연하기 매우 힘든 조건"이라며 "하지만 여수엑스포가 우리나라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고, 유니버설발레단이 현재 '심청' 월드투어를 통해 '발레 한류'를 개척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해상 공연은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성훈기자

*** The Segye Times: Aiming to become top ten in Brazil A Group in 2013
(Owner of Sorocaba, Heung Tae Kim)**

Chairman Heung Tae Kim (62) of the Atletico Sorocaba, which recently made its way back to the First Division seven years after its demotion to the Second Division, revealed that their goal for next year's season was to become top ten in the First Division.

“내년 브라질 A그룹 1부 톱10 목표”

김흥태 상파울루주 프로축구 소로카바 구단주

— 2005년 강등 이후 7년 만에 A그룹 1부리그에 복귀했는데 소망은
“말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1부리그는
각 목표를 세워서 점진적 단계로, 한디, 호
탈 등을 차례로 성취해야 할지라 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목표대로 1부
리그에 승격했다. 2012년에 20개 팀 중 10
위 안에 드는 것이고, 그리고 2014년에는
우승을 하겠다.”

**유소년 선수 육성책 전력 보강
2부리그 강등 7년 만에 승격
4개 구장 자체 호텔까지 갖춰**

있는 기술과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
다. 유나이티드 축구는 브라질이
각종 축구를 세계로 판매해 온다고 생각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육인 축구를
지원했다. 브라질과 소로카바 팀이 결집
성 경기장에서 경기를 가진 목표였다.”
— 소로카바는 브라질 특유의 마피아 축
구 때문에 1부리그에 오르지 못했다는 배

**“문선명 총재 꾸준한 지원 큰 힘
10위권 진입 불가능하진 않아”
현지 언론도 긍정적으로 평가**



아틀레티코 소로카바의 김흥태 구단주는 15일 '한국계 1부리그 축구 유망팀'을 만난 시몬 연을 만나고 있다.

경에서 선수로 전역한 뒤였다. 공격수로 유
명했다. 그 사람은 많은 팀마다 은수승, 주
장을 한 경력이 있다. 그는 축구를 하는 중
점에도 대학을 다니면서 심리학을 공부했
다. 그래서 선수들 심리 파악을 아주 정밀
다. 평소엔 선수들과 함께 시키는 것도
유별나다. 지니다. 선수들과 영웅도 보고
서카르도 보고하면서 즐겁게 지낸다. 그러
나 구장에서 훈련에 들어가면 호랑이다.
훈련장에서 카리스마가 뛰어나지만 필
소에는 선수들과 소근심을 많이 한다.”
— 브라질 프로축구 최계를 알고 싶다.
“브라질은 27개주다. 프로팀만 600개
가 된다. 전국적으로는 세리아 A, 세리아

B, 세리아 C, 세리아 D의 네 등급으로 나
뉘어 있다. 세리아 A는 A그룹 챔피언십을
붙인다. 또 챔피언십은 승강제가 있다. 세리
아 A에서 챔피언이 되면 브라질 전체 챔
피언이 된다. 27개 주에 각각 그룹이 있다. 보
통 A, B, C 그룹인데 어떤 주는 C, D 그룹까
지도 있다. 그 그룹이 각각 1~3부 리그로
나뉜다. 참고로 12년 전 구단을 인수했
을 당시에는 A그룹 3부에 있었다. 2008년 챔
피언이 된 것은 A그룹 2부 리그에 있
을 때 상파울루로 올라갔는데, 한국으로 예
기 하면 FA컵이다. 프로와 실업팀 어떤 다
함께서 통합 챔피언을 한 것이다.”
— 한국인 선수 중 김현승의 기량이 뛰
어나다고 하던데, 그리고 다른 한국 선수
들도 있다.
“김현승이 말하는 선수였는데 다른 팀으
로 임대된 적이 없었다. 다만 축구협회에
서 관심을 가져야 할 선수가 나타나면 된다.
유망해지면 포항하면 정말 선택이 있다.”
— 지난해 북한여자축구대표팀의 브라
질 전지훈련을 도우며 북한과 교류를 했
는데, 한국프로축구와는 어떤 상황인가?
“합동인 우리가 2부리그에 있었기 때문
에 교류를 하지 않았다. 1부 리그에 올라가
보니 팀당 한국 축구 리그에 대한 정보
가 되더라. 우리가 1부리그 10위권을 유지
하려면 브라질 전국의 좋은 선수들을 모아
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
다. 당장 7월 후반기부터 리그에 소개하고
싶은 선수도 있다. 부담스러운 클럽이 있
는데 리그에 이미 소개를 했다. 상파울루
1부 리그 다른 팀에서도 좋은 선수가 있다.”
—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지난 12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총
연료 재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면에서 부
족했다. 그러나 2008년 우승한 뒤부터 어떤
필라했다. 내년 1부리그에서의 목표는 10
개 팀 중 10위 안에 드는 것이다. 하늘의 별
따기 같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지 언론에서도 평가가 좋다. 스포츠
전문지 '에지프' 15월 20일자 기사도 좋
다. 우리 재단도 부채에 4개 연승우승을
고 있는 편입과 재단이 자체 호텔까지 있
고 있다는 칭찬을 소개하면서 '문선명 회장
의 브라질축구의 주역이 되다'라는 내용으
로 1개 면을 할애했다.”
— 김흥태 기자, 시몬 연 기자

“내년엔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005년 브라질 상
파울루주 프로축구 A그룹 2부
리그 강등 이후 무려 7년 만에
1부리그로 승격된 아틀레티코
소로카바의 김흥태(62) 구단주
의 말이다. 그는 “그동안 많은
투자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
년 시즌 목표는 1부리그 10위
안에 드는 것”이라며 “한국의
기준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
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불
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
다. 소로카바는 지난날 29일 A
그룹 2부리그 플레이오프 최
종전 무에니옹 비르비엔시전
에서 후반 종료 15분을 남겨두
고 2-1로 이기는 극적인 승리를
극복해 1부리그로 복귀했다.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 한국에
합동 김 구단주를 25일 서울
경천구 세제빌딩 사옥에서 만
났다.

- 아틀레티코 소로카바팀단**
- 1981년 1월 1일 (47) 1부 리그 1부 리그에 복귀
 - 1982년 1월 1일 (47) 1부 리그 1부 리그에 복귀
 - 2005년 4월 1일 (47) 2부 리그 승격
 - 2007년 11월 1일 (47) 2부 리그 승격
 - 2008년 11월 1일 (47) 2부 리그 승격
 - 2009년 11월 1일 (47) 2부 리그 승격
 - 2010년 11월 1일 (47) 2부 리그 승격
 - 2011년 11월 1일 (47) 2부 리그 승격
 - 2012년 11월 1일 (47) 2부 리그 승격
 - 2013년 11월 1일 (47) 2부 리그 승격

※ Please visit the Tongil Group homepage at www.tongilgroup.org/eng. Thank you.

Facebook: Tongil Foundation

